

[ 국제 ]

# 佛 '최초고용계약법' 결국 폐기

“다른 조치들로 대체”  
시라크 대통령 밝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0일 대규모 시위를 유발한 새 노동법내 최초고용계약(CPE) 조항을 폐기하고 실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조치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10일 엘리제궁에서 대규모 시위를 유발한 새 노동법 내 최초고용계약(CPE) 조항 폐기 문제를 놓고 내각과 회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것이고 믿음만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제궁의 발표 뒤 빌팽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새 고용조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에 유감을 나타내고 치솟는 청년 실업률을 신속히 감소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빌팽 총리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뒤 첫 2년간은 사유 설명없이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한 것이지만 고용

불안정을 우려한 학생들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자 빌팽 총리와 시라크 대통령은 문제가 된 CPE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물러섰으나 학생,노동계는 CPE를 아예 철폐하라고 요구해 왔다.

한편 일간 르 피가로에는 이날 학생들과 노동계간에 노선 차이에 따른 분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최진민기자 man21@

# 헝가리 좌파연합 1차투표 승리

23일 2차투표 최종 판가름

백만장자 출신의 주르차니 페렌츠(44)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사회당(MSZP) 좌파연합이 9일 실시된 총선 1차 투표에서 승리, 지난 89년 민주화 이후 첫 연속집권의 꿈을 부풀리게 됐다.

그러나 이날 1차 투표는 사회당과 제1야당인 중도우파 피데스(청년민주연맹)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108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아 최종 선거 결과는 오는 23일 열리는 결선 2차 투표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헝가리 선거위원회는 이날 투표가 67.5%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97%의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정당 지지 투표에서 사회당이 43.27%, 피데스가 42.15%를 득표했다고 발표했다.

개표 결과 사회당은 부다페스트를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 피데스는 농촌 지역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연맹은 6.33%의 지지를 받았으며, 지난 1998-2002년 피데스와 연정을 구성했던 헝가리민주포럼(HDF)은 의회 진출 최저선인 5%를 웃도는 5.03%를 득표했다. /연합뉴스



페루 총선에서 승리한 민족주의 좌파 후보 오안타 우말라가 부인과 함께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 페루 대선 좌파 우말라 선두

내달 7일 결선...2위경쟁 치열

중남미의 좌파 물결을 이어갈 것인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페루 대선이 9일 실시됐으나 과반 득표 후보를 내지 못해 내달 결선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

아직 공식 중간개표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투표가 종료하면서 발표된 출구조사결과에서 육군 중령 출신의 민족주의 좌파 후보 오안타 우말라(43)는 30% 내외의 예상 득표율로

선두를 차지, 결선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그러나 결선에서 그와 맞설 2위 득표자는 중도우파 계열 알란 가르시아(56) 전 대통령과 페루 첫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우파 계열 투르데스 플로레스(46)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선투표일은 당초 내달 7일로 잡혀 있었으나 내달 하순이나 6월 초순에 실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부활절 '평화 행진' 전통복장 스페인 남부 세비아 가톨릭 신자들이 9일 부활절을 앞두고 가톨릭 전통복장을 입은 채 '라 피스'(평화)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라 피스 행진은 24시간 내내 벌여진다. /연합뉴스

# “미국과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

北 김계관 부상 '북미접촉에 강한 의지 보여'

中 우다웨이 부부장도 北 6자회담 복귀 설득

6자 회담 북한과 중국의 수석대표가 10일 일본 도쿄에서 잇따라 북미 접촉을 강력히 희망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며 따라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의 회동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부상은 북미 수석대표 접촉에 대해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아 북미 접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북한은 미국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이날 오전 도쿄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북미 수석대표 접촉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

고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데 사전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조건 없이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다웨이 부부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오전 도쿄 시내 중국대사관에서 수시간 동안 양자협의를 가졌으며 우다웨이 부부장은 북한측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앞서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0일 북미 수석대표인 ‘도쿄(東京)접촉’ 여부에 대해 “모처럼 마련된 기회인데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날 북중 수석대표 접

촉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상은 이어 북미가 만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며 북미 접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7일 도쿄에 도착한 직후 언급했던 “동북아시아협력대화 기간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만남을 피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상당히 강한 톤이었다.

김 부상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북한의 무조건적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함에 따라 도쿄에서 북미 수석대표 접촉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다웨이 부부장도 이날 북중 접촉에 앞서 중국대사관에서 김 부상과 함께 자리해 “북한은 미국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북중 공조를 과시했다. /최진민기자 man21@

# 美 정가 '골프 경제력'

딜레이 의원 스캔들 이후 정치인들 기피 현상 뚜렷

호화 골프여행을 포함한 로비성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미국 톱 딜레이 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내놓게 되면서 미국 정가에 골프 경제력이 내려졌다.

이라고 전했다.

딜레이 전 원내대표가 진흥탕에 빠질 때 골프의 좋은 이미지마저 함께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딜레이 부부와 참모들은 지난 2000년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가 덴 비용으로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골프장에 초청돼 골프 접대를 받았다. 공화당 실세들

을 상대로 불법 로비활동을 펼친 아브라모프는 결국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로 5년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에서 골프는 퍼블릭 코스와 확산과 더불어 엘리트 스포츠의 딱지를 떼어냈고, 미국 대통령들은 아무런 부끄럼 없이 골프를 즐겨왔다고 이 잡지는 말했다. /연합뉴스

# 농심·삼양라면 등 3개제품 아일랜드 판금 처분

아일랜드 식품기준청(FSAI)이 한국산 농심과 삼양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방사선 처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FSAI는 지난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농심의 해물라면, 삼양의 짜짜로니와 해물파티 등 3개 제품이 원료에 방사선 처리를 했으나 제품 포장에 이를 표기하지 않아 유럽연합(EU)의 식품 표기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SAI는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고교육학). It promotes various courses like '이수' (I-su), '수학' (Math), '영어' (English), '미대' (Art), '체육' (PE), '과학' (Science), '컴퓨터' (Computer), and '음악' (Music).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address.

Advertisement for 'Gwangju Gosihakwon' (광주고시학원). It features '공인중개사' (Public Broker) and '주택관리사' (Real Estate Manager) courses. It highlights a success rate of 96.7% and a '4월 1일 첫진도 시작반' (April 1st Start Class). It lists the number of students who passed the exams and provides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Hundae Job Specialized University' (현대직업전문학교). It advertises a '4월 5일' (April 5th) exam for job seekers. It lists various job openings and exam details. It also mentions a '직장인 (무과점)' (Working Professional) exam.

Advertisement for 'Hanbit Gongmwon Hakwon' (한빛공무원학원). It promotes a '2006년 4월 10일 첫진도반 개강' (2006 April 10th Start Class). It lists the number of student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udeung Gosihakwon' (무등고시학원). It advertises a '2006년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2006 April 10th Start Class). It highlights a '특별채용 1,000명!!' (Special Recruitment 1,000!!) and provides contact details.